

석유 의존도 점차 낮아진다!

KEEI, 2011년 30%대 ... 석탄 소비비중은 꾸준히 상승

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가운데 석유 의존도가 현재 40%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곧 30%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.

에너지경제연구원(KEEI)의 <2009년 에너지 수요전망>에 따르면, 2009년 에너지 수요에서 석유의 비중은 소비 동향을 고려할 때 41.9%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.

국내 석유 의존도는 1978년 63.3%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하락해 2003년부터 40%대에 진입했다.

2000년부터 최근까지 석유 의존도가 전년대비 약 1.3%p인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2011년 경에는 사상 최초로 30%대에 진입할 전망이다.

에너지경제연구원은 “2009년 상반기에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경기침체로, 하반기에는 경기는 완만히 회복되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석유 수요가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연구원은 2009년 석유 수요는 1.2% 감소한 7억5910만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, 석탄 소비비중은 발전용 수요의 급증으로 30%대 돌파를 예상했다.

석탄 소비비중은 2007년 25.2%에서 2008년 27.1%로 증가했으며 2009년에는 28.2%로 증가할 전망이다.

2009년까지 유연탄 화력 발전설비 용량이 2370MW 증설될 계획이어서 발전용 유연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

한편, 원자력 비중은 2009년 설비 변화가 없어 2008년의 13.6%보다 소폭 감소한 13.4%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, LNG 비중은 2008년 14.1%에서 2009년에는 13.4%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2/23>